

광주시, 경기침체 속 '자금난' 중기 지원 나선다

경영안정자금 2700억 지원...전년보다 50억 증액 상반기 1900억원 업체당 3억원...우대기업 5억원

광주시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650억원보다 5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 19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배정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억원 한도다.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올해 기존 대출자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금 상환 확인서 제출도 면제했다. 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업종 확대, 대출 취급기간 1회 연장 등을 허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컨테이너 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업종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취급기간 1회 연장에 따라 처음 기한 내에 대출 실행을 농진 중소기업도 연장된 기한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이자 1%를 추가 지원한다. 우대기업이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최대 4%의 이차보전도 지원받는다.

경영안정자금 중 동행지원 협약자금 대출이 올

해도 유지됨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약 1.2%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13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국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자금 조달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이 자금난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04년부터 매년 2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 대우위니아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같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액을 증액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칠석 고싸움놀이...풍요·안녕 기원 제42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9일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서 열렸다. 동부와 서부로 나눈 마을 주민들이 짚신 모양의 '고'를 높이 들어올려 힘겨루기하고 있다. 고싸움은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벼집으로 고를 만들어 '서부 고'와 '동부 고'로 나누고 흥겨운 농악소리에 맞춰 참가자들이 대동단결의 힘으로 두 개의 고를 맞부딪혀 우뚝 솟음치며 고싸움의 장관을 연출하는 집단놀이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21개 기업과 1649억원 투자 협약

자동차·AI·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고용창출 750여명 기대

광주시가 자동차·AI·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다루는 21개 기업과 1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75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자동차·인공지능(AI)·에너지·의료산업 등 광주 핵심전략산업 21개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투자금액 1649억원, 고용창출 750여명 규모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개최한 이날 협약식을 통해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국내 19개 사(광주 13개, 타지역 6개)와 국외 2개 사

(미국 1개, 국내북구 1개) 등 총 21개사다.

산업분야로는 인공지능(AI) 융복합 연구개발 관련 기업 9개사, 자동차 부품 및 차량용 설비 제조 등 자동차 관련기업 5개사, ESS(에너지저장장치) 제조 등 에너지 관련 3개사, 의료부티 및 광학기기·냉장장비 제조 등 기타 4개사로, 광주시 핵심전략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투자협약을 맺은 ㈜오토펜은 의료용 엑스레이(X-ray) 기술로 출발해 산업용 부품 검출 CT 및 AI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오토펜 엑스레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발맞춰 공장을 광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디에이치오트웨어는 1979년 설립된 자동차

전장부품 전문 제조기업이며, 중국 청도공장을 빙그린산단으로 이전한다.

특히 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자동차 전장용 LCD패널 등을 생산해 해외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디에이치오트웨어는 2023년 평택공장 광주 이전 투자를 결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포함하면 투자액만 10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모빌리티 및 인프라용 라이다 센서와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스오에스랩과 IT융합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체 ㈜에스마이션구원, RE100 중개거래플랫폼, 스마트시티 플랫폼 등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기업 ㈜데플러스, 수질정화로봇, 녹조제거로봇 등 데이터 기반 통합형 스마트 수질관리 산업용 로봇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에코피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카라멜라 등이 첨단 3지구로 분사 이전 등을 추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토지면적 1만2363㎢...축구장 112개 만큼 늘었다

전 국토의 12.3% 차지

전남의 면적이 2024년 말 현재 1만2363㎢로 2023년에 비해 0.8㎢가 증가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증가한 면적은 축구장 크기(105m×68m)의 11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남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3%에 해당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간척지를 개발한 무안 남약신도시 옹골지구 택지개발사업(6·3단계)이 준공되면서 0.4㎢의 토지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 공시지가 기준(㎡ 당 47만원) 1880

억원의 가치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최서남단 신안 흑산면 가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안 미등록토지 0.4㎢가 늘어났다.

시·군별로는 해남(1045㎢)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911㎢), 고흥(807.2㎢), 화순(787㎢), 보성(664.6㎢) 순이었다. 지면 수는 해남(44만 5000), 고흥(41만), 나주(39만3000) 순이다.

토지 이용 현황 측면에서 보면 임야가 6931㎢(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3162㎢(25.6%), 도로 465㎢(3.8%), 대

321㎢(2.6%), 유지 등 기타 1484㎢(11.9%)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와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한 반면, 공유수면 매립·SOC확충·대지조성 등으로 도로, 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전남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면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는 개인 59.8%, 국유지 17.6%, 중증 7.5%, 법인 6.8% 순이며 전남도는 1.7%로 나타났다. /유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청사 1층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100평 규모...3월말 준공 목표

광주시가 시청사 1층을 시민 친화적 휴식공간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3월 말 준공 목표로 시청사 1층 동측 진입부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개방형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개방형 다목적공간'은 청사 동측 진입부에 200

명 이상 수용 가능한 1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측면이 개방감 있는 통창으로 채워지는 게 특징이다.

대신 기존에 있던 로컬푸드직매장은 서광주농협의 폐점 결정에 따라 철거되며, 희망장난감도서관은 맞은편 당직실 자리로 옮긴다. 민선 7기때 청사 1층 현관에 조성한 명예의 전당도 3층 대회의실 앞으로 이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